

매체국 1학기 활동 평가

발신 :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콰이/혹은 드더 매체국장이 된 콰이 --;;

수신 : 한 학기 동안 애쓴 사랑하는 (썩) 총여 집국들~

① 1학기 동안 화장실신문은 어땠나요? 짹~

앞으로는 이렇게 합 시대

콰이와 단단이 함께 토론
단단 정리

1. 격주간 발행은 잘 되었는가? - 일단 성공! 그래도

1) 기획- 집국회의를 통해 제때에 맞추어 생산할 글 확정과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이 모락모락에 대한 논의는 매번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2) 실무- 글생산이 부작 일 직전에 급하게 써서 실무는 주말을 이 용해야 제때 붙일 수 있었으며 가면 갈수록 월요일, 화요일로 실무가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국원들이 골고루 같이하지 못 했는데 두 팀으로 나누어 번갈아 담당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아무튼 성실하게 한학기 동안 8호?까지 나왔구 학우들도 화장실 신문의 존재를 많이 알더군요. 글생산은 꼭지별 평가에서 다루겠습니다.

3) 부작 및 중간점검- 아르바이트생은 여 학생 둘, 남학생 하나 였고 부작일이 정기적이라 연락하는데 신경쓸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잠시 알바를 맡았던 남학생들은 맡겨진 신문부작을 제때 마무리 지어지는 게 미진했으며, 이후 화장실신문제작이 늦어졌을 때나 시험을 보는 기간에는 여자화장실 역시 부작이 제대로 안돼서 만들어 놓은 신문을 아쉽게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중간점검 및 관리의 경우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떼어버리시는 바람에 관리자대표를 만나 잘봐주십사 부탁드린 후 확답을 받아냈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나아진게 없었죠. 그리고 알바생이 더욱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중간점검표를 만들었지만 중간이 아니라 다음 호를 부작할 때 기한지 난 신문의 생존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쳐버렸네요.

이런저런 노력에도 반수 이상이 2주간동안 제자리에 붙여져 있지 못한 건 1학기 내내 계속되었는데 기발한 대안이 없는 한 알바생들에게 중간점검 및 재부작이 일에 중요한 부분임을 숙지하도록 하는 게 최선인 듯 싶습니다. 알바비를 올려주면 더 잘할 지..

2. 꼭지별 평가(콘텐츠 중심의 평가)

1) 총여와 학생간의 소통부분- 홍보 및 피드백

총여 ING(정기적 일상적 사업들 중심), 꿈! 힘주고 있는 일들(기획행사 및 학생참여가 필요한 사업중심) 두 꼭지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하다보니 두 꼭지의 경계가 모호해진 듯합니다. 차라리 앞으로 할 행사들과 일상적 사업을 하나로 묶고,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학우들의 피드백을 유도하는 꼭지를 하나 새로이 만드는 건 어떨지 제안해봅니다. 그리고 지면의 한계상 짧고도 녹록하게(때론 상업적으로--)

행사의 의도를 전달하는 요령이 길러져야겠습니다.

2) 여성주의담론의 장으로 활용한 부분-내용 생산의 문제점

김이 모락모락 꼭지였죠? 화신에서 제일 많았고 문제시됐던 부분인데 별 대책마련 없이 한학기가 지났습니다. 일에 치이는 집국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주제소재 선정은 집국에서 소화하되 1차안으로 여성주의자에게 글청탁을 해서 검토 후 올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2차안은 매체의 칼럼이나 기사를 펴오는 것입니다. 또 학내일상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성찰해보는 글을 생산하기가 소재의 성격상(민감, 애매 등 등) 무척 힘들었기 때 문에 사회적이슈에 비중을 신되 한학기에 두번 정도로 축소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총여의 목소리를 담아야 할때는 당연히 히 집국에서 유연하게 소화해야겠구요. 글의 형식이나 논리성을 따로 고민해봤는데 구체적인 사건을 예로 들어 시작하는 게 학우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수거 후 시원하게시 판 정리 및 홈페이지에서의 피드백

총여ing 글은 생산에 동시에 홈페이지의 동일제목게시판을 업그레이드하고, 김이 모락모락~은 공지게시판에 올리기로 했었는데 대체로 홈페이지에는 늦게 올려졌습니다.

지난 호의 김이 모락모락 글들과 시원하게시판에 적힌 학우들의 글들을 정리해서 불타는 감자에 올리는 걸로 논의가 사이버상에서 계속 이어지게끔 하기로 했었는데 학우들의 의견 정리가 나중에는 잘 안되었으며, 학생들의 불타는 감자 게시판 참여율도 매우 저조했습니다.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관련 글을 올리는 등 주제에 대한 참고끼리를 던져주는 건 어떨까 싶네요. 시원하게시판에서 건의된 내용도 초기에는 위키민트에 정리해 올리다가 중간에 끊겼지요. 학우피드백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올려 재피드백하는 일은 매체국원 둘이 번갈아 맡았었는데 학기말쯤은 되서 집국인들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② 홈페이지 1학기 운영은 어땠나요?

역시 콕이, 단단 토론
정리 콕이

1. 제작

거금을 들여서 제작한 만큼 이쁘다는 평을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게시판 이외의 메뉴 (총여-ing,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등) 이 약간 썰렁했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 뛰어난 사람이 있었으면, 더 알차게 꾸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네요. (ex. 총여-ing 에는 행사 사진을 올리기.)

그리고 카운터기를 달려고 했는데, 어찌다가 유야무야하다가 쑥 사라져버리게 되었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나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궁금하기도 하니, 혹시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면, 자꾸 노력을 하던지 혹은 언니네에 부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와서?)

2. 메뉴별 업데이트 문제

1) 여성뉴스

이 메뉴는 매체국이 전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콰이가 단단이 번갈아 하기로 했었는데, 단단이 자기가 신경을 못 썼다고 반성(?)을 했습니다. 콰이에게 조금 더 몰렸죠. 정기적으로 날짜를 박아 놓고, 확실히 분담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콰이가 올릴 때가 되었다 싶으면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올라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2) 투표

이건 학기 초에 총여 내 한 집국께서 업뎃 책임지신다(일주일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하셔서 마음을 놓고 있었으나, 한달에 한 개 꼴로도 업뎃트가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이건 너무 자주죠.) 은 아니더라도, 좀더 자주 업뎃이 되어야겠죠. 돈이 아깝잖아요~ 글고 투표기 설치한것도. 여론(?) 수렴의 의미도 있지만, 홈페이지에 더 자주 들어오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으니까, 자주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려한 만큼 투표율이 저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3) 불타는 감자

꾸준히 업뎃은 되었으나, 글을 읽고 난 후에 감상(?)을 쓰기 위한 의견 게시판이 거의 '지난 호' 올리는 용도로 변했습니다. 원래 연세 학우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누가(총여집국이라든가) 먼저 글을 써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을 끌어냈어야 했던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올라오는 글들이, 별 의견(이견)이나 감상이 나올만한 글이 아니었는가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의도만큼 의견이 안 올라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4) 여자만의 방

철저한 보안을 한지라, 우려한 이상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글도 꾸준히 올라오고 조회수도 높았구요, 적나라한 얘기들도 나오구 분위기도 좋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적절하게 총여에서 신경쓰고 개입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총여 집국들이 얼마나 여기에 자주 들어가봤는지가 궁금하네요.) 요러한 게시판이 새로운 시도였던 것(50만원이나 들인~~) 만큼 어떤 의의를 둘 수 있는지 더 얘기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5) 총여-ing

이 메뉴도 매체국 전담이였습니다. 원래 화장실 신문의 ing를 그대로 올리려는 의도였으나, 신문의 -ing 가 워낙 짧은지라, 홈페이지의 -ing에서는 내용을 좀 늘려야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때 못하고 놔두었던 것 같습니다. 업뎃이 좀 많이 늦고 뜸했습니다. 반성... --;;

6)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자치단체 소개 및 소식을 위한 메뉴였습니다. 원래는 계속 자치단체의 소식등을 올리려고 했으나 학기 초 3월 인가, 4월 쯤에 한번 반짝 하고 말았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사들을 총여 홈페이지로 더욱 잘 알려 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때 그때의 특별한 행사들은 공지 사항에, 정기적인 소식은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총괄해서 페미니스트이다 메뉴에 업뎃하고, 공지에서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 같은데 제대로 실행이 안되었네요.)

7) 자료실과 링크

자료실은 처음의 욕심과는 달리 제대로 채워지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4월 이후에는 거의 올라온게 없었습니다. 방학 때 계획을 세워서, 1학기 행사자료집도 파일화 해서 올려 놓고, 다른 좋은 자료들도 많이 찾아 올려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자료실에 가봐도 나름대로 조회수가 높은 걸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없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링크도 훌륭하게 만들어놨지만, 개편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8) 화장실 신문 피드백

신문의 의견을 정리해서 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왕성하게 했으나, 후반부로 들면서 제대로 정리, 올리는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총여집국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사이버 홍보

행사나 사업들을 총여 홈페이지 이외의 사이버 공간에 알려 내는 것들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연세 학부 홈페이지 자게는 한 번 올리면 (너무나 글이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저 밑으로 가게 되고, 와이섹은 올려달라고 신청을 해야했고 (연애행사소식은 누가 신청한거죠? 아직 콰이는 몰라서 궁금) 나우누리 연세 동호회가 시들해져감으로써, 점점 커뮤니티들이 분산화되면서.. 더욱 홍보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 게시판 사용을 사용하려면 가입을 해야 하구요. 그래서 콰이는 방명록에다가 올리는 노가다(바디베 이식스 행사 때)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장난 아니게 힘들었죠. 근데 방명록은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효과가 없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사이버 홍보 방편으로 메일링 리스트(첨에 홈페이지 만들 때 얘기가 되다가 폐기처분 되었지만) 활용은 어떠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관심 있는 사람들만 등록할 것이지만, 그래도 그러한 사람들과의 좀더 끈끈한(?) 네트워크를 위해서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메일링 리스트의 활용은 선전과 소통에 꽤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③ 매체국내 일 운영

단단과 콰이의 일 분담이 초기에는 제대로 되었지만, 점점 소통이 안 되면서 일 분담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단단이 컴퓨터와 안 친하다는 이유(콰이도 별로 친하지 않다 구~)로 콰이에게 홈페이지가 물리게 되었습니다. 콰이도 잘못이 있었던 것 같네요.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알량한 홈페이지 기술을 같이 단단과 같이 공유했으면, 단단에게 일을 확실히 맡길 수 (쿠쿠)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학기 후반기로 가면서 단단이 연애 행사 주체를 맡고 또 개인적으로 바빠지면서 얼굴도 못 보구, 일의 원활한 진행이 좀 힘들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④ 총여 집국들의 평가 바랍니다.

⑤ 앞으로의 계획 (부실합니다 --;;)

- 링크 개편과 자료실 채우기 계획 (이건 방학 때 해야 겠져)

- 매체국 문서 정리 (이것도 방학)

- 여성뉴스 업데이트 집국 내 분담 (콰이 혼자 하기 싫어요) *순번은 정하자. 원형만 다.*

- 홈페이지 기술적인 면 콰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더 멋지구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본다.

- 언니네에 문의할 사항

- 화장실 신문 알바 (유선이가 그만 두니까요) 구하기

- 화장실 신문 개편 건. (지금의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 음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출력해야 해요 --;;

III 민우회와

교육

검숙이 늘 차례 민우회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았지요. 성교육을 받고, 하는 데 마음과 지식의 준비가 모두 잘 되었습니니다.

행사

첫 날 행사에서는 실사그림과 콘돌, 생리주기 팔찌와 같은 물품들과 내용을 민우회에서 가져왔습니다. 걱정도 했지만 내용이 행사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었고, 진작 같이 진행할 친구들을 더 체인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니다.

생리주기 팔찌가 인기가 좋아 모자랐습니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테스트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무스 네 개를 둘 씩 양쪽에 차려놓고 가운데를 전시물들을 걸어 놓은 게시판으로 나눠 놓아서 그림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기도 했지만 전체를 다 돌아보고 그 종합적인 내용과 의도를 알 수 있게 유도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지만 두어를 하기에는 역량이 너무 모자랐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니다.

아외에서 행사를 하게 되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니다. 별 반응이나 논쟁이 없었던 것이 -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항상 마찬가지지만 - 걱정스러운 느낌으로 남습니니다. 흥피에도 글이 별로 안 올라오고 행사 당일에도 별 이야기가 없습니니다.

다만 기자들이 너무 많이 왔고, 그것 때문에 일이 많아졌습니니다.

둘째날 강연을 민우회에서 직접 강사님이 오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매우 무난했습니다. 민우회 내에서 선생님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니다.

강연에서 무엇보다 아쉬웠던 점은 그 비디오를 통해서나 성지식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고치기도 하고, 그 잘못된 지식들이 어떤 배경에서 생겨난 것인지, 왜 우리가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지 하는 등의 풍부한 내용들을 나눌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거의 되지 않았고 지식을 나누는 데 너무 치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딱딱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연에서 벗어나지 실수들이 있었습니니다. 질과 자강의 그림을 그리시고는 자강을 계속해서 '살'이라고 말씀하신 것, 에이즈가 혈액과 '타액'으로 전염되고 정액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남성 성기 받기 초기에 나오는 '쿠피세액'을 '정액'이라고 하신 것 등,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 실수들 때문에 혹시라도 학우들이 신외감이 떨어질까봐 가슴이 조마조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권정도 있었지만 그것을 체계화하고 드러내는 방식에서 민우회의 도움이 컸습니니다. 자료집의 많은 부분을 민우회에서 받아왔는데 민우회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전혀' 쓰지 않은 커다란 실수를!

III 물품, 장소 준비

장소 대여에 별 문제는 없었지만 적절히 장소를 찾는 게 힘들기도 했고 제1차평회의실은 행사 진행하기에

는 법에서 나는 소리들도 시끄럽고 산만한 분위기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면이기도 했지요. 학생회관 앞은 비가 오거나 다른 행사와 겹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장소였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요.

게시판이나 다른 물품 준비는 검숙들의 노력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잘 되었습니다.

III 홍보

◦ 왕자모 - 매일 썼으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 당일 만파다와 동창회 자모 - 애초 계획에 없었으나 모두 성급하게 붙이게 됨.

◦ 피씨 - 일곱 개,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유인물 - 갑자기 생긴 아이디어로 만든 선전물이지요. 여성학 수업에서 뿌렸습니다. 총여의 일장과 겹치면서 몇몇 수업에서만 뿌렸고, 일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아리송~

◦ 주머니 - 아직도 원한이 남는, 애써진 했으나 원래 뿌리기로 계획했던 때 못 뿌렸습니다.

◦ 포스터 - 행사 시작 일주일 전 차원 없이 나왔습니니다. 부착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작 행사기간에 많이 붙어있지 않았습니니다.

◦ 통신선전과 여성학 수업 홍보는 좀 주의를 많이 기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학 수업을 잘 활용해야 할듯.

III 자료집

자료집 기획이 늦어진 것지만 모두 함께 고민하는 과정도 좋았고 그래서 집국 모두 글을 쓰게 되는 좋은 결과거나 또 자료집이 제작간에 제대로 나왔지요. 언어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언어 자체의 거부감적 측면이나 말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풀어내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니다.

III 행사진행

◦ 에피소드 1 - 제일 윗 항 민우회와의 부분 참조

◦ 에피소드 2 - 호신술, 너무 좋았음! 'o'

◦ 에피소드 3 - 역시 윗부분 참조

◦ 에피소드 4 - 영화 아주 재미있었다. 그러나 토론 당시 너무 영화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개인적 경험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다. 토론의 내용이 중구난방이었다. 토론을 좀 이끌어내야 할 사람이 필요했다. 일반 학우들이 토론에 많이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 앞으로는 사진을 꼭 찍었으면 함.

◦ 매 행사 끝나고 설문은 받는 방법도 좋았을 것 하는 아쉬움.